

KG그룹,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기업가치 정상화”

계열사 중장기 밸류업 로드맵 발표
향후 5년간 순이익 50% 주주환원
확재선 회장 “과소평가 바로잡을 것”

KG그룹이 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과 상장 계열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밸류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향후 5년간 상장 계열사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과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KG그룹은 9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케이카 인수를 축으로 제조·유통·금융'을 연결하는 통합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장 계열사 중장기 밸류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확재선 KG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 및 CFO는 물론 '참여이사'들까지 함께 참석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었다.

확재선 회장은 “그룹의 실적과 재무 건



확재선 KG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열린 'KG그룹 기업가치 정상화 및 미래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전성에 비해 시장에서 현저히 평가절하됐다는 평가가 많다”며 “명확한 수치에 기반한 중장기 성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G그룹은 현재 그룹 계열사들의 시장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가치 정상화’를 그룹의 최

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장 계열사는 ▲ 선제적 배당을 통해 5년간 총주주환원율 50% 확대 ▲ 자사주 정책 강화를 포함한 예측 가능한 주주 친화 정책 명문화 ▲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 ▲ 시장 친화적 사시 IR 활동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내용인 케이카 인수 이후의 모빌리티 전략도 구체화됐다. KG그룹은 국내 최대 중고차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케이카 인수 후 자동차 계열사 KG모빌리티(KGM) 및 결제 및 핀테크 그룹사 KG이니시스, KG파이낸셜과 역량을 하나로 결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차 제조부터 중고차 유통, 자동차 금융,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국내 유일의 ‘독점적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확재선 회장은 “자동차는 신차 한대가 팔리면 끝나지만 중고차는 두 번, 세 번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세배 가량 규모가 클 것”이라며 “케이카를 단순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매매와 판매, 금융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키워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KG그룹은 핵심 사업군인 모빌리티, 철강, 화학, 금융 등 6대 핵심 사업군의 구체

적 투자 규모와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발표했다.

KG케미칼은 동남아 등 해외 비료 사업 확대 및 울산 친환경 에너지 저장 인프라 구축을, KG에코솔루션은 울산공장 설비2~4배 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KGM은 해외 반제품 조립(KD) 시장 확대와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KG이니시스는 일본 이커머스 시장 진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B2B 선정산사업’을 시작한다. KG스틸은 고부가 철강 제품 확대, 친환경 공정 구축에 더해 인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확재선 회장은 “기업가치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결국 실적과 주주들과의 소통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며 “위기의 기업들을 살려내며 견고하게 성장해 온 KG의 DNA를 바탕으로 시장의 과소평가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엔솔, 美 ESS 공급 확대... 수익성 개선 속도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
증권, 2분기 흑자전환 예상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전력망·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확대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을 바탕으로 생산라인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207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156억원으로, 북미 ESS 출하 확대와 유럽 전기차 배터리 물량 회복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며 북미 수요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북미 ESS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해 현지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전력기업 DTE에너지와 6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기간은 약 2년이며 계약 규모는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 ESS 전력망 컨테이너 제품

알려졌다. 앞서 한화큐셀 미국법인과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5GWh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실제 출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ESS 출하량은 5.3GWh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글로벌 ESS 시장 성장률 78%를 크게 웃돈 수치다.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1.4%에서 올해 1분기 2.7%로 상승했다.

비용 부담 완화 요인도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4월 약 3000억원 규모의 환급을 신청했

으며 현재까지 1000억원 인콰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유럽 출하 회복이 더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전기차배터리 탑재량이 올해 3월 전년 동기 대비 33%, 4월 25%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내 테슬라 판매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물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했던 유럽 전기차량 고전압 미드니컬 배터리 판매 재개도 주목된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면서 성능과 원가를 함께 고려한 배터리 제품군 수요가 다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며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북미 ESS 수주 물량 공급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이 이어질 경우 생산라인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조선업계, 5월 선박수주 199만 CGT... 中 점유율 격차 3%p

(표준선환산톤수)

척당 평균수주 규모 중 2배 웃돌아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 5월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에서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3%포인트까지 좁혔다. 척당 평균 수주 규모도 중국의 2배를 웃돌며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9일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월 글로벌 선박 수주량은 452만CGT(표준선환산톤수·147척)로 집계됐다. 전월 818만CGT보다

45%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37만CGT와 비교하면 91%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11만CGT(97척)를 수주해 점유율 47%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9만CGT(34척)를 기록하며 4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척당 평균 수주 규모는 한국이 5만9000CGT, 중국이 2만2000CGT로 한국이 더 높았다.

지난 1~5월 누적 글로벌 수주량은 3356만CGT(1108척)로, 전년 동기 2066만CGT(863척)보다 62%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은 2298만CGT(816척)로 68%의 점유

율을 기록했고, 한국은 708만CGT(168척)로 21%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중국 103%, 한국 84%였다.

5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2억20만CGT로 전월보다 379만CGT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억2943만CGT로 65%를 차지했고, 한국은 3706만CGT로 19%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중국은 317만CGT, 한국은 14만CGT 늘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국은 116만CGT, 중국은 2552만CGT 늘어난 수치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큐셀, 탠덤 셀 기반 태양광 기술 고도화

우주태양광 실증 프로젝트 참여

한화큐셀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탠덤 셀을 앞세워 차세대 태양광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우주태양광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 표면에서 우주 환경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세계 최초 탠덤 모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인증을 통해 지상용 제품화 기반도 강화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독일법인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가 참여하는 SSTE-1 우주 과학기술 실증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해 탠덤 셀 샘플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SSTE-1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이시스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하는 우주기술 실증 프로그램이다.

조지아공대 산하 비영리 응용연구기관인 GTRI는 우주 환경에서 태양광 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한화큐셀의 탠덤 셀을 실증 제품으로 선정했다. GTRI는 달 탐사선 표면에 탠덤 셀 샘플을 설치해 진공, 극심한 온도 변화, 자외선, 우주방사선 등 지상과 다른 환경에서 실증 데이터

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실증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탠덤 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우주태양광 기술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실증에는 한화큐셀 독일 탈하이 R&D센터가 독자 기술로 제작한 탠덤 셀이 사용된다.

탠덤 셀은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 수준의 발전 효율을 구현하면서도 동일 용량 기준 중량을 낮출 수 있어 발사·운용 측면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한화큐셀은 2029년 지상용 탠덤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주태양광 분야로의 기술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박승덕 한화큐셀 대표는 “우주태양광은 지상 태양광의 한계를 넘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이자 AI 데이터센터, 방산, 통신 등 핵심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지닌 플랫폼 산업”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가능성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KAI, AI·DX 기반 국방 솔루션 선배

11일까지 ‘국방산업발전대전’ 참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군수지원 기술을 앞세워 미래 항공전력 운용 개념을 제시한다.

KAI는 오는 1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에 참가해 MUM-T와 AI·디지털전환(DX) 기반 국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회전익 무인자율전투체계(ROMACS), 지원장비체계를 공개하며 미래 항공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조한다.

전시장에는 KF-21과 KAI가 자체 개발 중인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기 MUCCA·SUCA를 연동한 NACS 모형이 전시된다. 소형무장헬기(LAH)에 MUM-T 개념을 적용한 전시 모형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미래 공중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MUM-T 운용 개념과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시각화한다. 종합군수지원(I PS) 존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정비예측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교범 등 미래 군수지원 솔루션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에는 미래 국방 기술 트렌드와 민·군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에도 참여해 산·학·연·군 간 기술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